

Newsletter No.30

2017년
3+4월호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소식지

안전보건
단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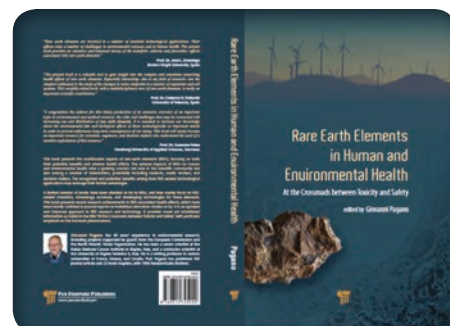
연구결과 기술이전을 통한 안전 알림 릴 개발 및 상용화 추진

안전연구실 최상원 연구위원은 지난 2012년 「감전재해의 발생특성과 재해 원인 심층 조사분석 연구」를 통해 ‘과전류 알림 기능을 탑재한 리셉터클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기술은 전기제품에 과전류가 발생하면 번쩍거림이나 소리로 사용자에게 화재, 감전 등의 위험을 알려주는 기술로, 과부하가 걸리기 전에 미리 사용자에게 신호를 주어 화재사고 등을 예방하고, 전원차단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실을 막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주)용진기업 허용 대표는 이 기술을 활용,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공단으로부터 실용신안 사용허가를 요청했고, 지난 2016년 4월 공단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최근 제품화(안전 알림 릴)에 성공해 시장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희토류 산업독성학 연구동향을 주제로 한 국제원서 저술

산업화학연구실 임경택 연구위원은 '17년 1월에 발간된 국제 원서인 Rare Earth Elements in Human and Environmental Health: At the Crossroads between Toxicity and Safety (Pan Stanford Publishing)에 제1장 Trends in Occupational Toxicology of Rare Earth Elements의 제목으로 희토류 산업독성학 연구동향에 대한 내용을 여러 나라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 원서로 저술하였다.



제1차 산업안전보건 발전 포럼 개최

산업구조 및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및 안전보건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된 제1차 산업안전보건 발전 포럼이 2017년 3월 22일(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산업안전보건 발전 포럼은 정책제도연구부가 수행중인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보건 정책의 미래전략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 올해 9월까지 월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다. 포럼에서 다루게 될 주제로는 “원하청 간 권한 책임체계 협력방안”,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산업 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이해도 및 친화력 증대 방안” 등이며, 그밖에도 정책방향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파급력이 큰 이슈들이 포럼 주제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 특수건강진단 분석정도관리 교육 실시 |

직업건강연구실은 2017년 3월 28일(화)에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생체시료분석업무 종사자 및 교육희망자 101명을 대상으로 대전역 인경실에서 특수건강진단 분석정도관리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에는 생물학적 노출지표 자체분석을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 79개소가 참석하였으며, 특수건강진단 생물학적 모니터링 관련 제도 변경사항 안내(직업건강연구부 이미영 부장) 및 산업보건관리에서의 노출기준의 중요성(연세대학교 김치년 교수) 등 생물학적 노출평가 업무 수행과 관련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직업건강연구실은 매년 분석자들의 분석능력을 향상시키고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분석정도관리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 2017년 안전보건 이슈리포트 Vol.11, No.1 발간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17년 3월 30일(목) 안전보건 이슈리포트 1분기호(Vol.11, No.1 통권 74호)를 발간하였다. 안전보건 이슈리포트는 시급성·중요성이 있는 산업안전보건 문제에 관한 이슈를 요약한 것으로, 이번호에는 「흡입독성 연구시설을 이용한 저농도 장기노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방안」,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산업용 로봇의 안전성 향상 방안」, 「정전기 물성평가를 통한 안전인 증기준 도입의 필요성」, 「잠수작업 중대재해 사례의 원인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특수건강진단 분석 및 정도관리의 현황과 과제」, 「가습기 살균제 후속대책의 효과적인 이행방안」 등 총 6편의 원고가 실렸다. 안전보건 이슈리포트는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으며,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 석유화학단지 대형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세미나 개최 |

산업화학연구실은 2017년 3월 29일(수)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 대강당에서 석유화학단지 화학사고 저감을 위한 화학물질관리 제도, 대형화학사고 사례 및 예방대책을 주제로 하는 “석유화학단지 대형화학사고 예방”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였으며, 화학물질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른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대형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 및 전문사업 성과 등 정보 공유와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석유화학단지협의회를 포함한 충청권 공정안전협의회 회원사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세부 주제로는 △2017년 PSM 정책방향 및 예방전략(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화재·폭발사고사례 및 예방대책(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화학물질 체계적 관리 실무(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등으로 이루어졌다.



| 화학사고 예방 및 원인규명을 위한 위험성평가 보고서 발간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물리적 위험성 분석과 사고사례, 안전대책을 담은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총 4권으로 △LPG운반선 탱크용 보온재의 물리적 위험성평가 △원료의약품의 화재·폭발 위험성평가 △폴리우레탄 중합공정의 열적 위험성평가 △발포용 레졸형 페놀수지의 열적 위험성평가를 다루고 있으며, 각 물질에 대해 화학사고 원인규명을 위한 실험 및 데이터 분석, 사고사례 및 물리적 위험성 등에 대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06년부터 위험성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보건
단신

| 폐활량검사교육 개선을 위한 세미나 개최 |

직업건강연구실은 2017년 4월 8일(토) 서울여자대학교에서 폐활량검사교육 강사 및 예비강사 27명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위한 개선안 마련 및 통일된 강의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폐활량검사교육의 수요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나, 강사부족으로 교육기회 확대가 어렵고 강사마다 강의내용이 상이한 점 등이 매년 화두가 되어왔다.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적극적인 강사 양성방안 제시 및 교육내용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등 폐활량검사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2017년도 상반기 산업보건분석 전문가 교육 실시 |

4월 13일(목)에서 14일(금) 이틀간 경북 문경 STX리조트에서 「17년 상반기 산업보건분석 전문가교육」을 실시하였다. 전국산업보건분석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교육은 작업환경측정·분석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주제로 측정기관 및 특수검진기관 분석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연구원 직업환경연구실, 화학물질정보연구부, 전국산업보건분석협의회,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직업환경보건센터 등 관계자가 참여하여 △특별관리물질 관리방안 △분석속련도 향상을 위한 강의 등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와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개선에 대한 토론회도 함께 실시됐다. 또한 산업보건 분석 및 정도관리제도 발전 공로자에 대한 연구원장 표창이 수여되었다.



국제활동

| 「근로환경에 관한 글로벌리포트」 작성을 위한 연구회의 참석 |

안전보건정책연구실 박종선, 김보경 연구원은 2017년 3월 26일(일)에서 31(금)까지 총 4박6일의 일정으로 스위스 제네바 ILO본부를 방문해 국제노동기구(ILO)와 Eurofound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회의에 참석했다. 국제노동기구(ILO)와 Eurofound가 공동추진 중인 「세계적인 관점에서의 근로환경에 관한 글로벌 리포트」 작성을 위한 이번 연구회의는 근로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유럽 등 여러 국가들의 근로환경조사에 관한 보고서(National Report) 내용 검토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별로 시행한 근로환경조사결과를 비교 분석하고, 근로환경의 구성요소와 위험요인별 결과를 파악하는 등의 분석결과를 담을 예정이다.

「세계적인 관점에서의 근로환경에 관한 글로벌 리포트」는 올해 10월 초안을 완성해 내년 1월에 최종 완료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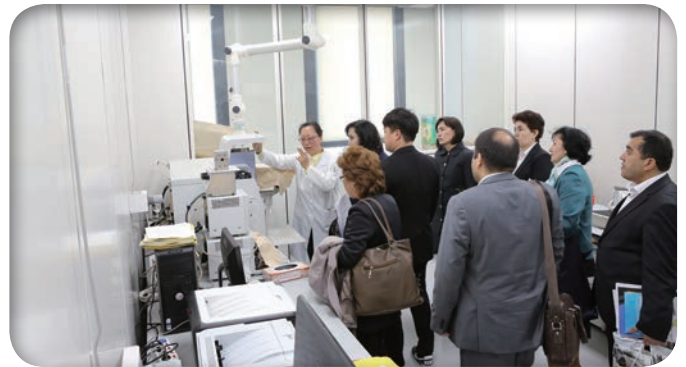
| 정전기 안전용품의 안전인증기준 개발 연구 관련 국외출장 |

안전연구실 최상원, 변정환 연구위원은 4월 10일(월)일부터 14일(금)까지 일본 노동안전위생종합연구소(JNOSH)와 산업안전기술협회(TIIS), 카스카와전기(주)를 방문하였다. 이번 국외출장은 2017년 연구과제인 「정전기 안전용품의 안전인증기준 개발 연구」수행을 위해 관련 전문가 자문을 청취하고, 국외 안전인증 관련 기준 및 규격을 조사·분석하여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정전기 관련 제조업체인 카스카와전기(주) 현장을 방문하여 정전기 물성 측정장비 및 제전기 제작공정을 견학하고 물성 측정방법 기술을 연수받는 등 선진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자리를 가졌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의과대학 연구원 방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17년 4월 11일(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의과대학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연구원 사업을 소개하고 관련 실험실 견학을 진행하였다. 안전보건 및 환경보건 관련 연구교류와 학술협력 목적으로 한 이번 방문에는 Rakhimov Bakhodir 교수 등 타슈켄트 의과대학 교수 9명과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 최재욱 교수 등이 참석하였으며 생체시료분석실험실과 임상병리실험실, 유기/무기분석 실험실 등 직업건강연구실과 직업환경연구실의 주요 실험실을 둘러보고 실험실을 활용한 주요 연구사업과 활용결과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의과대학은 한국의 산업보건 및 직업건강 정책과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우즈베키스탄 산업보건 발전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역대학 대학생을 위한 연구원 견학

안전연구실은 2017년 3월 16일(목) 지역소재 대학생들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번 견학은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건설안전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공단 홍보관 및 직업환경연구실, 안전연구실의 실험실 투어를 진행하였다. 또한 인증원의 가설기자재 시험실에서 안전방망의 인증시험과정을 견학하는 시간도 가졌다. 안전연구실은 6월과 9월에도 지역소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 3차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보건분야 예비 전문인력 멘토링 실시

직업건강연구실은 지난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연구원 체험기회 제공 및 미래 산업보건분야 예비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총 3회(3/22(1차), 4/5(2차), 4/19(3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본 멘토링 프로그램은 산업보건의 이해부터 산업보건관련 공단사업 및 연구과제 소개, PBL(Problem Based Learning)을 통한 역학조사 사례 소개 등으로 구성되었다. 직업건강연구실은 산업보건분야 예비전문인력에게 진로의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원-지역학교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지난 2015년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



소식지 신청 / 해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소식지를 전자우편으로 받아보세요!

소식지를 추가 구독하고 싶거나, 인쇄물 형태의 소식지가 아닌 전자우편으로 본 소식지를 구독하고 싶으신 독자께서는 아래 메일로 전자우편 주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원 소식지 담당자 : bleiben00@kosha.or.kr